

자연치유생태마을 대티골 마을 안내도

일월산

일월산은 경북에서 가장높은 해발 1,293m로 웅장한 산세를 지녔다. 봉화군 재산면, 영양군 일월면, 청기면, 수비면에 걸쳐져 있으며 낙동강의 상류 지류인 반변천(半邊川)이 이곳에서 발원한다. 산이 높아 해와 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고, 옛날 산마루에 천지라는 연못이 있어 그 모양이 해와 달을 닮았다고 일월산이라고 하였다는 설이 있다.

대티골과 용화리의 유래

대티는 큰고개를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한다. 고개를 뜻하는 티(堤)는 구개음으로 되어 티-치로 소리가 바뀌었으므로 볼 수 있다. 용화리는 신라시대 이곳에는 아홉마리의 용이 살았는데 구룡모두 하늘로 올라가고, 고루려매 구룡이 하늘로 올라간 이곳에 용화사라는 절을 지었으니 땅이름 또한 용화라고 불렀다. 용화사는 지금 없어졌으나 유적으로 삼층석탑이 남아있다.

용화사와 용화리삼층석탑

통일신라후기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용화사는 쌓은돌이 10리를 흘러갈 정도로 절의 규모가 크고 스님의 수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용화리삼층석탑은 용화사에 있었던 탑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제9호이며 일제시대 이후 석탑을 무너뜨리고 도굴되어 마을 주민들이 다시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선녀탕

일월산의 여러계곡중 일자봉에서 동북편으로 이어진 강림곡 초입에 위치한다. 하늘나라 선녀를 다스리는 신선이 내려와서 이곳을 보고 선녀들이 목욕할 곳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녀들의 오르내림을 허락 했을인지 끝까지 이름이 강림곡이요, 선녀들이 목욕했던 곳이라 하여 선녀탕이라 한다.

일월용화광산과 일월산자연화공원

용화광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광물수탈을 목적으로 1939년부터 일월산에서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굴하고, 선광장과 제련소를 운영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다가 1976년에 폐광되었다. 근대문화유산 255호로 등록되어 있어 당시 선광장의 공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폐광이후 30년간 금속제련과정에서 사용한 화학성 독성물질로 오염된 광미와 폐광석 등이 방치되어 토양오염이 심해 풀이 자라지 못하고 오염된 침출수로 인해 하천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2001년 폐광지역 토양오염 방지사업 일환으로 제련소 부지의 오염원을 일몰·매립하고 자연화공원을 조성하여 생태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월산해맞이공원

통일신라후기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용화사는 쌀드물어 10리를 흘러갈 정도로 절의 규모가 크고 스님의 수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용화리삼층석탑은 용화사에 있었던 탑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제8호이며 일제시대이후 석탑을 무너뜨리고 도굴되어 마을 주민들이 다시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유형강화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광물수출을 목적으로 1939년부터 일일강화에서 군, 읍, 면, 도의 7개 단계를 채워나간, 산관정제와 제련소를 운영하였다. 해방이후 한강의대 개채 운영금과 1976년에 폐광되었다. 근대문화유산 제25호로 등록되어 있어 당시 한강의대 공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폐광이후 30년간 급속재래지정에서 사용한 화석성 독성물질로 오염된 광미와 폐광성 등이 발생되어 토양오염이 심해 흙이 자라지 못하고 오염된 채굴수로 인해 하천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2001년 폐광지정 지역을 방치한지 일흔여섯 해를 훌쩍 넘긴 채굴수 부지의 오염원을 발원·배출하고 저장화장원을 조성하여 생태환경보전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월산해맞이공원